

# '효자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을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효자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미숙 의원(효자3·4동·사진)은 25일 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효자공원묘지 이전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공원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효자공원묘지 이전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장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기피로 이전 지역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다른 지역 주민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공원묘지 이전



##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 5분 발언 통해 제안

보다는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따르면 전주소자공원묘지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묘지가 조성돼 7300기가 매장된 공동묘지로, 지난 1977년 공설묘지로 조성되면서 5400기가 추가로 안장된데 이어 2010년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실외 봉안원까지 조성됐다.

전주시 도심이 서부지역으로 확장되면서 효자공원묘지 인근 학교와 주민들 사이에서 공원묘지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입 시장 재직 중 2008년 전주소자공원묘지 공원화 추진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은 서부 신시가지 일대의

패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묘지의 봉분(무덤)을 납골당이나 수목장 형태로 전환하고, 공원묘지 주차장에 축구나 야구 등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해 시민공원으로 추진하는 공원화 사업을 제안했다.

여기에 2010년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전주시도 효자공원묘지에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변화하는 장례문화 수요에 맞게 무연분묘 2203기를 개장하고, 그 공간에 2차 자연장지를 지난해 7월 추가로 조성했다.

이 의원은 "효자공원묘지 이전에 따른 막대한 예산투입과 지역민 간 갈등과 분열에 의한 손실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공원묘지 이전이

아닌 공원화 사업과 승화원 신축사업 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전주시에서 착수한 장기미집행사업과 연계된 효자공원묘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효자공원묘지의 공원화 사업부지 약 42만㎡ 중 17만1000㎡가 미집행 면적"이라며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이전에 공원화 사업에 필요한 미집행 부지에 대한 사업을 먼저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원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결될 경우 효자공원묘지는 기존 묘지의 기능과 친환경 생태녹지 공간이 양립하고, 참배객과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응하는 아름다운 묘지공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재 기자

# "전주역 선상역사로 재건축해야"

##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원 촉구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원이 전주역 선상역사로 재건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관우 의원(진북, 금암1·2동·사진)은 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역사는 건립한지 35년이 지난 비좁고 낡은 시설로 철도이용객들의 불편이 크다"며 전주역 선상역사 재건축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전주역은 현재 면적 7만9706㎡에 주차장 124면과 버스·택시승강장, 상업매장 6곳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역 이용



객은 256만명으로, KTX 개통 후 전주역을 찾는 이용객은 102만명으로 개통 전(65만 명)보다 55% 이상 늘어났다. 하루 평균 이용객도 1만7000명

을 넘어섰다.

남 의원은 "전주역은 2010년 대비 철도이용객이 128만 명이 증가해 서울역을 제외하면 전국 철도역사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철도이용객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낙후된 전주역 시설은 철도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재 기자

# 오정화 시의원 "전주책방 운영 정체성 찾아야"

전주시의회 오정화 의원은 시청 로비에 문을 연 '전주책방'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을 주문했다.

오정화 의원(인후3동, 우아·2동·사진)은 25일 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청 로비에 들어선 '전주책방'이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시청은 모든 시



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슬로건 아래 전주시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서울책방'을 벤치마킹 전주책방이 문을 열었지만, 정작 서울시민들의 서울책방 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 의원은 "현재 전주책방은 전주시와 시민이 소통하는 시민청의 역할도 없고, 이렇다 할 책방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전주책방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전주책방에 걸맞은 도서전시와 운영 프로그램, 시와 시민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 친모 운영 교회에 불 질러

교회 운영권 다툼으로 친모가 운영하는 교회에 불을 내리 한 40대 여 목사가 경찰에 불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5일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목사 A(44·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17분께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전주시내 한 교회 주차장에서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내 물을 받아라" 원주지역 약 35도 기록 등 전복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된 25일 오후 시민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 10대 소녀 모델 유인해 성매매 시킨 20대 징역형

10대 소녀를 모델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알선영업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3시에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A양(14)을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이튿날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에서 A양에게 15만원을 받고 B씨와 성관계를 갖게 하는 등 그 해 6월10일까지 총 49차례에 걸쳐 공범 고모(20)씨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을 상대로 A양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 "시민과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시정을"

## 전주시의회 송정훈 의원

전주시의회 송정훈 의원이 현안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시정을 주문했다.

송정훈 의원(조촌, 동산, 팔복, 송전2동·사진)은 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

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중환경기장 개발, 도도동 항공대 이전 등 현안 사업이 시민들과 소통 부족으로 터덕이고 있다"며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항공대 이전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열린 지 한 달 하고도 보름이 지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항공대 이전을 몰아붙인 전주시가 주민들에 대한 설득 노력 없이 에코시티와 태영을 앞세워 업무방해로 고소 등 법정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립노인복지병원 병상 증설

##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로 국비 4억 확보

전주시가 시립노인복지병원 기능보강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 치매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 치매질환자의 사회적응 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주시는 2016년 보건복지부 공공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립노인복지병원의 치매환자 치료기능 개선과 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4억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공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에는 전주시노인복지병원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등 단 2곳이 선정됐다.

전국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업대상에 포함된 배경에는 시와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 전주 원산을 지역구 의원인 정운천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인 김광수 국회의원의 공조가 힘을 더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번 공모에 확보한 국비 4억과 시비 8억 등 총 12억을 투입, 시립노인복지병원에 14병상을 증설할 계획이다. 또, 응급호출시설과 의료산소 공급시스템 등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확충, 미끄럼과 눈부심 방지 바닥설치 등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입원환자들을 위해 보다 가정적이고 독립생활이 가능한 치매병동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정적 분위기의 생활공간을 설치하고, 환자 스스로 각도조절이 가능한 전자동 침대를 구비해 오랜 시간 침상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전문 치료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